



핫클리닉 Hot Clinic

고생했어요 엄마, 수고했다 딸, 아들
새로운 시작을 앞둔 모녀와모자를 위해

PAGE : 2



편인터뷰 Fun Interview

뷰파인더를 통해 느끼는 따뜻한 시선
강남 CNP차앤박피부과 심재홍 원장

PAGE : 5



줌인 Zoom In

고객별, 시간별 맞춤형 서비스
삼성 CNP 차앤박피부과

PAGE : 8



해피타임 Happy Time

사람이 미래인 CNP 차앤박
CNP 주춧돌 관리자 워크샵 현장 속으로

PAGE : 11



포스트잇 Post-it

산이주는 귀한 선물 ...
안산점 김현정 수간호사

PAGE : 14



칭찬릴레이 Praise Relay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칭찬"
CNP 차앤박네트워크 칭찬일기

PAGE : 18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cnpskin.com/webzine>에 방문하시면 CNP 차앤박피부와 웹진을 보실 수 있으며, 방문후기 작성시 행운이 따릅니다.

햇클리닉 : Hot Clinic

CNP 차안박의 피부과 시술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많은 정보 얻으시고 예뻐지세요!



“

고생했어요 엄마, 수고했다 우리 딸, 아들~!

새로운 시작을 앞둔 모녀&모자를 위해 CNP 차안박피부과만의 피부 재탄생 프로젝트

11월 12일 2010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진다. 이를 위해 열심히 공부했던 수험생은 물론, 자녀 뒷바라지에 밤잠을 함께 설쳤던 어머니는 일단 이 날이 지나면 한시를 놓기 마련이다. 이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탄력과 생기를 잃어버린 칙칙한 피부, 수험생의 경우에는 여드름과 여드름 흉터 등이 새로운 고민거리로 등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건조하면서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관리에 소홀하면 피부 건강을 잃기 쉽다. 따라서 문제를 발견했으면, 즉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 피부를 회복하는 것이 좋다.



Ⅰ 세상의 모든 어머니를 위하여 리바이탈 프로그램

수험생 부모는 자식이 잘 때까지 밤 늦도록 함께 잠을 설친다. 또한 수험생 못지않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며, 수능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기 마련이다. 때문에 수능을 마친 어머니의 피부는 수험생 못지않게 피곤한 모습이 대부분. 특히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내분비 체계의 원활한 활동을 방해해 피부는 거칠고 칙칙해지며 탄력을 잃어 쳐지는 것은 물론 노화가 가속된다. 또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가중되면 신체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근육을 수축시키고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며 피부는 모든 자극으로부터 민감하게 반응하여 피부도 민감하게 변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무리한 시술 대신 피부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전문 관리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닥터 TIP : 중년 여성 피부 고민의 합리적인 해결법 '쿨젠테라피'

리바이탈 프로그램의 핵심 관리 중 하나인 쿨젠테라피는 펄스형 전류와 교류 전류를 이용해 피부를 전체적으로 개선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CNP차안박피부과에서 자체 개발한 고농도 히알루론산 베이스의 비타민 C와 피부 재생을 돕는 특수 젤을 피부 깊숙이 침투시켜 피부 건강의 회복을 도와준다

따라서 피부 미백과 색소 개선은 물론, 건조해지고 탄력이 없어진 피부에 제격인 치료법으로 중,장년층 여성의 최대 피부 고민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쿨젠테라피는 목 주름 관리에도 효과를 보이기에 일주일에 1회 정도 스페셜 케어로 꾸준히 받으면, 동안 피부로 거듭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피부 상태에 따라 시술횟수가 정해지며 피부결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여드름 자국 완화에도 좋아 자녀와 함께 받을 수 있는 관리 중 최고로 꼽힌다.

I 여드름과 여드름 흉터는 이제 안녕~!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여드름 치료이다. 또한 실제로도 여드름 때문에 병원을 찾는 학생들이 많다.

여드름은 원래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피부 트러블 중 하나. 이는 과도한 피지 분비가 그 원인이지만 수능을 준비하면서 부족한 잠과 스트레스로 인해 여드름은 더 심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무의식적으로 더러운 손으로 여드름을 만지고 뜯는 버릇으로 인해 흉터가 보기 싫게 남게 된다. 이 때 적당한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증세가 악화되거나 재발하기 쉬우며, 평생 보기 싫은 흉터는 물론 넓은 모공으로 고생하므로 전문적인 치료를 미리 받는 것이 좋다.

닥터 TIP : 여드름을 위한 PDT, 포토 스케일링, 흉터가 심하다면 DRT 진피 재생술로 해결

여드름의 종류가 다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드름 치료법도 그에 따라 달라진다. 먹는 약, 바르는 약,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치료를 하기도 하며, 시술을 이용한 치료도 선호된다.

그 중 여드름 치료의 효과적인 시술법으로 떠오른 **PDT**는 약을 먹거나 피부에 직접적인 손상 없이 빛을 쏘아 여드름 균을 사멸하고 피지선을 파괴시키는 치료법이다. 또한 각질세포를 탈락시켜 폐쇄됐던 모공을 열어 여드름을 빠르게 호전시켜 준다. 1개월 간격으로 3회 정도 시술이 이뤄지면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여드름에도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여드름 치료와 함께 피지 과다, 모공 확장, 블랙 헤드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고 치료 효과가 오래 유지된다.

포토스케일링 역시 기존의 스케일링 치료와 광선치료를 결합한 것으로 부작용이 적고 치료효과도 뛰어나다. 광선 에너지가 여드름 균을 파괴하고 피지선의 기능을 감소시켜 여드름 스케일링과 병행하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난치성 여드름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여드름 약을 복용하기 힘든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항생제 내성으로 치료 효과가 없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다. 치료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1~2주 간격으로 5회 정도 치료하면 좋다.



만약 여드름 흉터가 심하다면 피부재생을 위한 프락셔널 방식의 레이저 치료인 **D.R.T 진피 재생술**에 주목할 것. 이는 흉터 부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천 개의 미세 구멍을 내서 진피의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기존에 한달이상 필요했던 회복기간을 단축시켰다. 이에 치료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간에 빠른 효과 보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시술이다.

마지막으로 여드름은 근본적으로 피부질환이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 도움을 받아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재발과 악화를 예방하는 치료까지 지속하는 것이 중요함을 명심하자.



편인터뷰 : Fun Interview

CNP 차안박피부과의 인연이 있는 좋은 사람들을 공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공간에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진을 통해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 이야기

그의 뷰파인더(Viewfinder)를 통해 느끼는 따뜻한 시선

강남 CNP차안박피부와 심재홍원장

대학 시절, 좋은 여행지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는 재미에 폭 빠져 입문하게 된 사진 찍기. 비록 레지던트 시절 학업에 열중하면서 잠시 중단하기도 했지만, 좋은 여행지에 대한 추억을 담은 사진의 느낌이 좋아 다시 카메라를 잡았다던 심재홍 원장의 사진을 향한 사랑을 함께 느껴보자.

단순하게 찍고,
찍히는 사진은 공허함만 남긴다.

열심히 찍었던 사진이 담긴 필름을 통째로 분실했을 때의 허탈감보다 더 속생겼던 것은, 분명 멋진 풍경을 사진에 담은 것 같았는데 막상 그 사진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을 때였다. 즉, 내 눈에 찍혔던 그 때의 풍경이 더 이상 기억 나지 않았던 것.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사진을 찍는데 만 정신이 팔려서 그 만 현장에서 경치를 만끽하는 것에는 정말 소홀 했던 것이었다. 이 때 얻은 교훈이 바로 **무턱대고 찍기만 해서는 좋은 사진을 남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좋은 경치를 마음에 담은 경우가 더 많았고, 자연스럽게 사진기는 무거운 여행 가방에서 쉽게 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되었다.



심재홍원장



따뜻한 시선이 이끄는 빛의 마술



결정적으로 다시 사진기를 손에 들게 된 것은 우연히 들러본 사진전 벽에 붙어있던 글귀, "사진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다."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이다. 눈으로 보지만,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사진을 찍을 때의 감성을 오롯이 담은 사진의 매력이 떠오르자 자연스럽게 카메라에 손이 가게 된 것. 그림도 그리는 사람의 감성이 화폭에 담기듯, 사진 역시 찍는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세상에서 필름 카메라를 더 선호하는 것도 제일 좋아하는 사진작가로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Henri Cartier Bresson)을 꼽는 것도 모두 같은 이유.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Henri Cartier Bresson)을 보고 있으면 작가를 만나보지 않아도 참 따뜻한 사람일 것 같아 좋고, 필름 카메라도 정이 담긴 부드러운 느낌을 전할 수 있어 더 찍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라며 사진의 매력을 말하는 심재홍 원장의 눈에서 사진에 대한 애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만약 피부과 의사가 안되었다면..

CNP차앤박 네트워크 닥터세미나에서도 원장님들의 사진을 찍어 보내주기도 하고, LP판을 수집하기도 하는 등 차앤박 예술계의 만능엔터테인먼트로 이미 정평이 나있는 심재홍원장에게 마지막으로 피부과 의사가 안되었다면 무엇이 되었을 것 같은지 물었다. "기계 조립하는 것을 좋아해서 엔지니어가 되지 않았을까요?"라며 의외의 답과 함께 수줍게 웃는 그와 함께한 시간을 사진으로 담는다면, 누가 봐도 '화기애애'한 사진이 나오지 않았을까?!





줌인 : Zoom In

CNP 차안박 피부과의 지점을 소개하는 코너로 보이지 않는 2%까지 지점의 면면을 시원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트렌디하고 개성넘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CNP 차안박피부와 삼성점

백화점, 특급호텔, 고층 빌딩들이 뻗뻗하게 자리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영화는 물론 쇼핑, 음식, 볼거리등 많이 걸지 않아도.. 일부러 찾지 않아도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이곳은 언제나 젊은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또한 교통과 통신, 첨단 비즈니스 인프라를 두루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의 메카이자 아시아 최고의 전시, 문화 관광의 명소로서, 일년에 수십개의 전시와 행사가 진행되는 코엑스 인근에 위치한 삼성 CNP차안박피부과를 방문하였다.

피부귀족!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발 빠르게 준비하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고객층. 평일 낮 시간대에는 애인과 함께 손을 잡고 내원하는 고객이 많으며, 저녁 퇴근시간에는 거의 직장인들로 대기실을 메운다. 무엇이든 유행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곳에 있다 보니 최신 기술도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고객들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고객 개인의 피부에 맞는 레이저 및 치료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를 해 놓았다. 또한 피부가 예뻐지는 차를 요일에 맞춰 따로 준비해 놓은 센스까지 돋보인다.

따뜻한 미소와 세련됨이 묻어나는 곳.

삼성 CNP차앤박피부과에는 두 분의 원장님이 계신다.

김성욱 원장님은 정기적으로 오랜 기간 꾸준히 내원하시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원장님. 세심한 상담으로 거북이 원장님이라는 애칭이 생겨나기도 했지만, 내원하는 고객 하나하나에게 꼼꼼한 진료와 세심한 치료로 피부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항상 옆집 동네 아저씨 같은 따뜻한 미소 역시 원장님의 매력 포인트.

황재영 원장님은 피부의 고민이 곧 마음의 병이 될 수 있다고 늘 강조하시며, 고객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는 소통을 중시한다. 모든 미인의 기준은 '오직 피부'라는 신념으로 주변에 무수히 생기는 병원에 맞서 오직 피부만을 진료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치는 피부전문가. 피부과의 패셔니스타이기도 한 멋쟁이 원장님이 바로 황재영 원장님이다.

고객별, 시간별 맞춤형 서비스로 외국인 고객까지 O.K

특히 삼성점의 경우, 주변에 많은 직장인들이 자주 방문한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 삼성 CNP차앤박피부과만의 『직장인 맞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을 위해 예약제를 시행하여 진료와 시술에 대한 대기 시간을 최소화 하였으며, 코스메틱 치료를 받는 고객은 관리자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제공, 림프마사지와 고주파 장비를 이용한 스트레스 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긴 휴가를 낼 수 없는 직장인들을 위해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레이저 클리닉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더불어 외국인의 발걸음이 많은 곳인 만큼 의료관광을 진행 할 수 있는 지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를 하는 등 고객들의 만족을 위한 그들의 맞춤형 노력은 계속 되고 있다.

김성욱 원장



황재영 원장



요즘은 잘







해피타임 : Happy Time

CNP 차앤박 피부과의 기분 좋은 소식 및 전 지점이 참여하는 캠페인, 제휴, 온오프라인 등의 현장스케치를 담았습니다.



“인재를 키우는 것은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

CNP 차앤박 주춧돌, 관리자 워크샵 현장속으로

기업의 10년 성장은 기술과 시스템으로 가능하지만 100년 성장은 사람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는 모 회사의 마음처럼, CNP차앤박피부과가 항상 최고로 자리잡은 비결 역시 바로 사람이라는 의견엔 아무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즉 조직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일이 바로 조직을 성장시키는 근간이라 여기고,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숨은 노력이 바로 CNP차앤박피부과의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CNP차앤박피부과에선 2005년을 시작으로 1년에 2번씩 꾸준한 관리자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9월에 진행한 관리자를 위한 **‘성공병원을 위한 경쟁력 확보방안’** 실전교육 현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교육 전 날 토요일까지 힘들게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교육을 향한 뜨거운 열기는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관리자워크샵 현장속으로 한번 빠져보실까요?



1 사람이 미래다

조직 내에서 사람을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각자의 네트워크 병원 MOT (Moment of Truth) 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난고객 달래는 방법, 고객이 병원에 내원했을 때 응대하는 방법 등 소소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모두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2 열린 마음과 뜨거운 열정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워진 감동의 교육

Oneday 교육으로 진행 하였던 관리자 워크숍 현장은 무엇보다 각 파트별 관리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가 압권이었습니다. 황금같은 휴일에 왜 이런 교육을 하는지 속상해하는 분들도 있었을 지 모르지만, 실제로 배우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열린 마음과 열정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3 CNP 차안박피부과의 주춧돌

CNP 차안박피부과의 각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주춧돌입니다.



포스트잇 : Post it

CNP 차앎박피부와 가족의 추억에 노랑, 파랑, 빨강의
포스트잇을 붙여 모두의 추억으로 엮어가는 코너입니다.
hasowsow@cnpskin.com



산이주는 귀한선물 ...

**항상 같은 자리에서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그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운동이나 취미생활 하나 가지지 못하고 점점 떨어지는 체력으로 고민하던 2008년 가을의 어느 날, 친한 친구의 권유로 산악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 후 산을 오르기 전 설렘과 산을 오르고 난 후 느끼는 상쾌함에 중독되어 버렸다.

사진, 글 안산점 김현정 수간호사



속리산의 가을정취는 단풍으로 예쁘게 물들어가고.

한창 단풍이 예쁘게 물든 10월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한팔경 중 하나인 속리산을 다녀왔다. 너무나도 오랜만의 산행이었기에 천왕봉에 가까이 다가 갈수록 가빠져 가는 내 숨소리 점점 무거워져 가는 내 두 다리를 원망하였다.

하지만 원망도 잠깐, 정상에서 느끼는 시원한 바람과 상쾌한 공기,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곱게 물든 산을 바라보니 '아~'라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 산 아래에서 보는 것과 다른 산 깊숙이 들어올수록 더 진해지는 단풍의 매력은 매 년 가을산을 찾게 되는 결정적 동기이다.



봄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진달래 축제가 열리는 고려산

2번째로 선택한 산행은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태어난 곳이라는 전설이 전해지는 고려산이었다. 봄의 정취를 느끼며 10분 정도 오르니, 고려산의 진면목이라 하는 진달래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활짝 피지 못하고 수줍게 웃고 있는 듯한 진달래꽃부터 만개한 진달래꽃 덕분에 10대의 수줍은 소녀로 돌아간 듯한 감성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시름을 사라지게 하는 금수산

퇴계 이황이 단양군수 시절 비단에 수를 놓은 듯 아름답다고 해서 부르게 된 금수산... 서편으로 흐르는 푸른 남한강 충주호와 남쪽으로 뿔어 내린 바위 능선인 가은산과 동지봉은 단양팔경 구담봉, 옥순봉과 더불어 단구협을 이루는 천하비경을 연출한다. 산이 좋은 이유를 굳이 꼽자면... 푸르름이 내 두 눈을 쉬게 하고, 지친 마음을 보듬어 주며, 마음의 짐을 놓게 하고, 무엇보다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 아닐까!



하루만에 서울 도심의 다섯개의 산을 열 두시간에 완주한 산행

북악산 → 인왕산 → 안산 → 백련산 → 독바위산, 서울 도심 다섯 개의 산을 하루, 열 두시간을 완주한 산행이었다. 종주 산행은 극기(克己)와 어우러짐의 산행이다. 내 체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고 내 앞과 뒤의 사람들과 서로 어우러져 함께 해야 하는 산행인 만큼, 그 매력은 더욱 컸다.



스파이더걸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관악산 등반

신림동과 과천, 안양의 경계에 있는 관악산 11국기봉 중주 산행이다.

옥문봉(국기봉1) → 칼바위(국기봉2) → 민주동산(국기봉3) → 깃대봉(국기봉4) → 상불암(국기봉5) → 육봉(국기봉6) → 팔봉(국기봉7) → 학바위능선[학봉](국기봉8) → 자운암능선[토끼바위](국기봉9) → 낙타바위(국기봉10) → 관음사위 국기봉(국기봉11)

되새겨보니, 정말 내가 어떻게 이 산들을 다 올랐을까..놀라울 따름이다. 스파이더걸이라는 별명도 너무 당연하게 느껴진다.



산을 좋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씩은 꼭 가봤을 설악산

이번엔 설악산이다. !!

무박 산행이라는 무리한 일정이 살짝 걱정되기도 했지만, 토요일 새벽 5시 오색공원에서 시작한 산행은 신선하게 다가왔다. 설악 폭포를 지나 아침 8시에 드디어 대청봉에 도착!

사실 설악산을 등반하는 중간에 몇 번이나 포기한 채 하산하고 싶었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왠지 내 삶의 힘든 고비에서도 똑같이 이겨내지 못하고 바로 포기해 버릴 것 같아 정상 등반이라는 목표만 생각하고 나를 채찍질 했었다.

그렇게 해서 목적지에 도착한 순간, 내려다 보이는 설악산만의 절경도 아름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 여기까지 온 내 자신이 너무 대견스러웠다.

아~ 정상에서만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분은 시원한 바람과 무사히 올라 왔다는 인간 승리의 벅찬 감동, 마지막으로 하산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안도감.

정말 올라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분이다.



가을바람 타고 올랐던 8번째 산행, 치악산

얼마전 8번째 산행으로 치악산을 다녀왔다.
산행을 하면서 힘들 땐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다시는 안 와!'라는 생각이 들지만 힘겹게 오른 정상에서 맞이하는 아름다운 풍경, 상쾌한 바람, 내 어깨의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가장 멋진 순간! 그 순간의 강한 감동 때문에 우린 산과 이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앞으로도 나의 산행기는 계속될 것 같다. 쭉옥~!

등산배낭 잘 꾸리는 방법

1. 짐은 가볍고 부피가 큰것을 아래쪽에 무거운 것을 위쪽으로 놓는다.
2. 배낭은 집에서 꾸려야 한다.
3. 가벼운건 밑에 무거운건 위에, 배낭에 매달진 말아야 한다.
4. 배낭이 다 구려지면 메어 봐야 한다.
5. 배낭을 꾸릴때는 먼저 커다란 비닐봉지를 배낭 안에 넣어 방수가 되도록 한다.
6. 지도 주머니칼 필기구 등 자주 사용하는 것은 따로 모아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둔다.
7. 배낭 겉에는 아무것도 매달지 않는 것이 좋다.





칭찬릴레이 : Praise Relay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CNP 차앰박피부과의 보석 같은 여러분을 추천하고 칭찬하는 공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칭찬'

CNP 차앰박네트워크 칭찬일기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마음에만 담는다면 상대가 알지 못하듯, 칭찬하는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속스러울 지라도 용기를 내서, 짧지만 진심이 담긴 칭찬 한마디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는 듣는 사람에겐 힘이 되며, 하는 사람에게까지 해피 바이러스를 퍼뜨리곤 합니다. 잘했을 때 격려하고 칭찬을 해주는 것, 이거 나쁜거 아니잖아요~ 왜이래요, 칭찬하면서 칭찬 받으면서 한 번도 기쁜 적 없었다는 사람처럼~ “멋져요.”라는 짧은 한마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칭찬하면서 살자고요~!!

지난호 추천인

성신여대점 한송이 에스테이션이 칭찬하는 양재본원 김정아 과장

실험정신이 투철하세요



제가 CNP차앰박피부과에 입사하고 처음으로 피부과관련 해서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양재본원의 대들보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정아과장님 덕분입니다. 특히 CNP 차앰박네트워크에 입사를 했다면 누구나 들어보셨을 이분의 교육은 자타가 공인하는 알찬 정보임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과장님을 잘 따르는 것은 물론이고 궁금한 것이 있어 언제든 물어보면 언제나 완벽한 솔루션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내원하시는 고객님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죠. 실험정신도 매우 투철하셔서 새로운 레이저, 약품이 나왔다면 테스트 및 분석, 왜 좋고 나쁜지도 척척 말씀해주시는 김정아 과장님. 늘 도전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저는 이분을 칭찬합니다.

양재본원 김정아 과장이 칭찬하는 압구정점 맹선화 메디컬코디네이터

서비스의 겸손함이 보여요.

입사하셔서 처음 교육을 받으러 양재본원에 왔을 때 이분에 대한 느낌이 남 달랐습니다.

눈은 동글동글 어찌나 크지.. 참 눈물이 많고, 마음이 약할 것 같은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고객님들께 상처를 많이 받지는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되었지요. 근데, 이런 생각은 저의 완벽한 기우! 생글생글 웃으며, 고객님을 응대하는 모습을 보고, '이 분은 서비스 직업이 천직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고객님께 세심하고 편안한 응대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분 앞에서는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배워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고객을 응하는 모습에 매료되어 본받고 싶은 마음에 저는 이분을 칭찬합니다.



압구정점 맹선화 메디컬코디네이터가 칭찬하는 평촌점 김세영 수간호사

결에만 있어도 뜨거운 에너지가 느껴져요



2009년 2월 상반기 부서장 워크샵에서 만난 평촌 CNP 김세영수선생님..

수선생님 특유의 명랑한 표정과 파워풀한 말투에 완전 매료 당한 1인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너무나 밝은 성격으로 1박2일 동안 같은 조원으로 써, 함께 하는 것 만으로도 커다란 에너지를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에너지는 저의 사그라지던 열정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둔 아이의 엄마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young~해 보이는 것도 밝고 활기찬 생활 때문이 아닐까요!^^ 좋은 기운 불어 넣어 주셔서 감사 드린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 저는 이분을 추천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쫓~ CNP의 비타민이 되어주세요...!!

인간관계에 율활유가 되는 칭찬의 말 10가지

- | | |
|----------------|-------------------------|
| 1. 참 잘해냈다. | 6. 도와줘서 고마워 |
| 2. 요즘 멋져 보여 | 7. 역시 자네야! |
| 3. 아주 훌륭하다. | 8. 잘 알고 있었군.. 바로 그것이야.. |
| 4. 참신한 아이디어다. | 9. 소문처럼 틀림없군.. |
| 5. 일하는 모습이 좋다. | 10. 놀랍군.. 놀라워.. |

